

ITU-T 자문반(TSAG) 국제회의

민성동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주무관



1. 머리말

ITU-T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전기통신표준화 자문그룹)은 ITU-T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ITU-T A시리즈 권고(Recommendation) 등에 정의되어 있는 작업 방법 및 ITU-T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me)과 ITU-T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협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TSAG 회의에는 40여 개국 170여 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6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WTSA(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서 논의할 ITU-T 연구반 구조 조정 이슈를 비롯하여 포커스 그룹의 역할, 지역 그룹 참가 자격, 합의(Consensus)에 대한 용어 정의 등 ITU-T 내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ITU-T 연구반 구조 조정

전기통신표준사무국(TSB)은 지난 2019년 12월 TD문서를 통해 기존 연구반 간 역할 중복 배제, 융합이슈 대응, 운영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현재 11개의 연구반을 6개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각 회원국은 자국 의장의 차기 회기 연임이 예상되는 연구반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해당 논의 과정에 산업체 의견을 포함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중국, 러시아, 스위스는 자국 의장단이 포함된 연구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 구조를 유지 하거나 소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이번 WTSA-20에서는 4개 연구반 의장의 임기가 만료 예정으로 구조 조정에 적절한 시기이며 현 11개 연구반을 8개로 재구성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2건의 기고서를 통해 구조 조정 시 고

려해야 할 원칙과 현재 우리나라 의장단이 속한 SG 17의 병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SB는 SG 5, SG 12, SG 17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SG 17은 14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등 단일 연구반 규모로도 큰 편에 속하며, 연구반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여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운용상 문제점들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안건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이슈로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2.2 연구반 지역그룹 회의 참여 기준

미국, 브라질, GSMA는 지역그룹의 신설 및 폐지 권한, 회원국 및 기타 멤버의 타지역그룹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ITU에 요청하였다. ITU LAU(Legal Affairs Unit)는 지역그룹의 설립 승인은 각 SG의 권한이며, 지역에 속하지 않은 회원국 및 기타 멤버는 타지역그룹 회의에 참석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이집트는 지역 그룹에 타 지역 회원을 포함할 경우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미국은 동 사항은 지난 TSAG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타지역 회원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 가능하며 반박하였다. 논의 결과, 국가회원, 섹터회원, 준회원, 학계 회원 등 타지역 회원은 옵저버 자격으로 지역 그룹 논의에 참석 가능한 것으로 합의하고, 차기 TSAG 및 WTSA를 통해 이에 대한 결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3 합의-Consensus의 정의

캐나다는 현재 WTSA 결의 및 A시리즈 권고에는 합의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어, 각 회의에서 의

사 결정 시 의장의 주관적 결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ITU-R의 경우 '합의'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기에 ITU-T 또한 이에 대해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캐나다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은 합의의 기준을 수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ITU의 기본 정신 및 회의의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였다. 이에 ITU 법률 담당은 ITU-T에서 합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 원칙은 WTSA 결의1 및 A.1 권고의 결정절차에 함의되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해당 안건은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4 권고 A.7(포커스 그룹의 작업 방법 및 절차) 개정

미국은 기술적 개발이 없는 미래기술에 대한 포커스 그룹 설립을 지양할 것과 모그룹(Parent Group)이 포커스 그룹 발간물을 ITU-T 권고, 기술보고서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포커스 그룹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의 권고 A.7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중국은 포커스 그룹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결과물에 대해 모그룹이 지지(endorse)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국, SG 13 의장은 포커스 그룹의 결과물은 모그룹의 업무영역, 완성도 등의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에만 표준 문서 초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차기 TSAG회의 전에 전자회의(e-meeting)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3. 맺음말

2020년 11월에는 ITU-T 분야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WTSA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의 대두로 AI, 자율주행차, 양자암호통신 등 차세대 ICT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번 WTSA-20에서는 국제 표준화 활동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금번 TSAG회의에서는 연구반 구조 조정 이슈를 비롯하여 ITU-T 활동에 관련된 각국의 다양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TSAG회의는 WTSA-20의 전초전 성격이 짙은 만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한국ITU연구위원회 산하에 WTSA-20 대응 준비반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WTSA-20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차기 TSAG회의는 2020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